

News

7%대 신용대출, 고정금리로 갈아탈까... '고정<변동' 역전

머니S

7% 선을 뚫은 신용대출의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기현상이 나타남
채권 시장에 장·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

한은 “집값 조정과 디레버리징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”

데일리안

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블로그서 강조
“물가 상당기간 목표수준 상회”

결국 다 바뀐 금융지주 회장... 내부발탁 가고 新관치 오나

파이낸셜뉴스

역대급 실적 내세워 연임 노리던 금융사 수장, 자의반타의반 용퇴
10여년 계속된 파벌주의 부작용, 尹정부 '투명성 확보' 거듭 강조

KB국민은행, 부실 우려 차주 연체이자율 1%p 감면

머니S

KB국민은행은 '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'을 한시적으로 시행
가계대출 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후속 대책

보험료 10% 깎습니다 생보사 '종신보험' 유치전에 나선 이유

뉴스1

예정이율 높여 보험료 인하하거나 납입기간 나눠 부담 낮춰
올해 IFRS17 도입에 종신보험 판매 유리... '제3보험' 확대 움직임도

보험사들 돈 되는 GA에 ‘실탄수혈’

매일일보

보험사들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(GA) 조직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인수·합병(M&A)에 나서는 등 규모를 키움
GA 조직을 통해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GA 영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

금리 오르자 증권사 신탁 자금 ‘썰물’

아시아투데이

한은과 美 연준 통화 긴축 강화로 자금 유출 '지속'
투자자 손실 발생할 위험...전문가들, 리스크 경고

‘토큰증권’ 발행·유통 허용... 증권사들, 코인시장 파고든다

서울신문

새달 구체적 규율체계 발표, 각 증권사 시스템 구축 돌입
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, 자산 '10조 이상' 상장 법인 내년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